

전주시, 서노송예술촌·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선정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의 2017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전주시가 제출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와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2개 사업이 각각 도시생활환경개선분야와 지역역량강화분야 사업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사업'과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 화계화수립'이 선정돼 총 사업비 32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내년에도 2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2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98개 사업을 신청 총 4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전북도에서 선정된 6개 사업 중 전주시가 2개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주시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첫해인 2010년부터 매년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해왔다. 이에 따라 4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이번 국토교통부 심사통과에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전주시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으로 기획재정부의 최종심의를 통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도시생활환경개선 분야에 선정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는 서노송동 선미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업 업그레이드 '골목에



“우리 모두 블랙리스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 문화예술 긴급행동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예술가들이 예술검열 및 블랙리스트 사태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화를 심다.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선미촌 문화재생산업업을 전담하는 전주시 도시재생과 서노송예술촌팀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국가공모사업을 위해 성남과 진주 대진 등을 오가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한 끝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까지 통과,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국가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가예산 30억원 확보했다.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은 선미

촌을 포함한 서노송동 706·19번지 일원 (11만㎡)을 사업대상으로, 선미촌 인근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해피하우스 집수리사업 등을 강화하는 주거복지를 필두로 골목경관 정비, 소방도로 및 주차장,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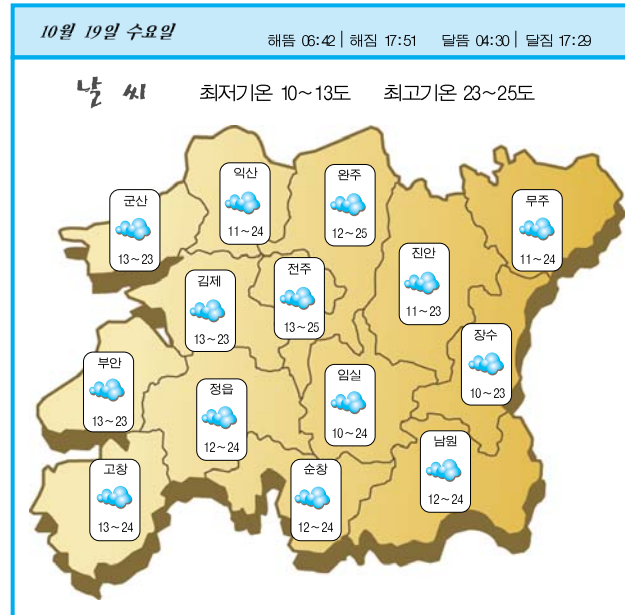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 정점인 아트팩토리, 아트레지던시 사업 및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여행길도 조성된다.

전주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내년

부터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에 들어가며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쇠퇴한 서노송동 일원에 활력을 불어 넣는 문화예술촌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역량강화분야에 선정된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4억원 중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김영재기자



22일 전주비빔밥축제 행사 특별 교통대책 추진

전주시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16 전주비빔밥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전주비빔밥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비빔퍼포먼스가 올해 풍남문 앞 사거리로 장소를 옮겨 진행함에 따라 행사 당일인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풍남문 사거리부터 안산경찰서 입구 삼거리까지 팔달로 240m구간의 양방향 차선을 전면 통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비빔퍼포먼스의 원활한 진행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팔달로 해당 구간에 대해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또 해당 시간 운행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은 기린로와 전주천서로 등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임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과 경찰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총 170명의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우회도로 안내 등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경로와 기린대로, 전주천서로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통제 구간 주변에는 교통통제 시설과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입간판과 현수막 등이 설치된다.

관계자는 "비빔 퍼포먼스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풍남문 광장 사거리에서 열거했다"면서 "양방향 전면 통제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운행 시에는 사전에 통제시간과 구간을 확인해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지하수통합 정보관리시스템 특허등록 추진

인허가·요금부과·수질관리·등매뉴얼 구성... 완료까지 1년의기간 소요 예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하수 관련 정보를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지하수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추진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난 8월 26일 개발한 '지하수통합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특허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분산관리돼온 지하수 관련 정보자원을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세원 발굴을 촉

진시키기 위해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인허가(허가·신고시설, 지하수영향조사 분석) △요금부과(하수도시요금, 이용부담금) △수질관리(검사결과, 수질분석, 수질현황) △시설물관리(지하수관정, 이용실태조사) △비밀이용시설(시설물현황, 검침·부과 관리, 보조금지금, 유지관리 점검) 등의 매뉴얼로 구성됐으며, 개발에는 약 8개월의 기간과 1억15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됐다.

시는 이날 중 지하수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특허등록을 출원할 예정으로, 특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 사태와 지하수 오염에 사전 대비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관련 현장민원 처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대민행정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이용

과 적극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지하수 사용에 따른 숨은 세원 발굴, 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특허사용 허가에 따른 유료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희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전주시가 독보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지하수관리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창출한 행정재산과 권리를 특허등록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수준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원광대 한약학과 강정수 학생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약학대학 한약학과 4학년 강정수 학생이 '2016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 전국심사'에서 3,000만 원의 사업자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스마트창작터 사업은 앱·웹, IT 융합 IoT 등 IT 관련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팀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창업 팀에 대해서는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정수 학생은 정보전자상거래학부 정영호 학생과 팀을 이뤄 전자석의

인력과 역량을 적용한 스마트 도어를 출품했으며, 핵심기능으로 와이파이가 접속을 통한 스마트폰 연동 원격 도어락 제어 및 모니터링, 전자석 척력을 이용한 자동문열림기능, 화재감지 및 도어락충격알림 등을 적용해 호평을 받았다.

강정수 학생은 "사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재미와 흥미를 갖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며, "성공창업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2016 농·특산물 대축제

해발 400~800m 연평균 11.3°C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알합니다!

제2회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

기간 2016. 11. 04. (금) ~ 06. (일) 3일간

장소 무주군 예체문화관 일원

주최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대축제 추진위원회 Tel: 063)320-2841~2